



교장 한수영

## 꿈 · 사랑 · 지혜 · 용기를 지닌 인형인

인간은 태어나면서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부여받은 생명이 그 중 가장 큰 것이요, 가족, 지역, 국가 등을 비롯 이 생명체를 감싸주는 선물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무조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조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걷고, 말하며, 일할 줄 알아야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처럼 주어진 현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상 개혁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다. 여러분은 내일, 즉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므로 내일을 잘 가꾸기 위해 꿈과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 발전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현상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한 어린이가 실년에 세배하러 가다가 동전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는 새해 첫날에 생긴 대단한 행운이라 여겼고 이런 행운이 계속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혹시나 돈이 떨어져 있지는 않나 하고 길을 걸을 때마다 아래를 보고 다니 많은 동전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죽는 날까지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꿈이 없어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여 결국 삶의 근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정이 없는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불신감만 팽배해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범위는 좁아지고 단체 속의 자기보다는 자기 속의 자기만을 내세우는 습성으로 인하여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더욱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자기는 물론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판단이 부족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여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의 윤리관이 파괴되어 큰 죄악을 저지르고도 뉘우치는 모습이러곤 전혀 없는 광경이 사회 대중 매체를 통해 비쳐지고 있는 것은 요즘을 누구나 다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정의의 결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 선불리 감행하지 못하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급급한 나머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핑계가 필요하고 맙니다. 자연히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자기 고통 속에서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하여 삶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형인 여러분, 오늘 모습이나 내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아래만 내려다보아서도 위만 쳐다보아서도 안됩니다. 앞을 내다보고 끊임없이 위아래 좌우 번갈아 보며 걸어가는 빠르고 힘찬 인형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